

다산포럼

트럼프를 어이할까?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일삼는 모한 인물이다.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면서도 늘 술에 취한 듯 붉은 얼굴로 쏟아내는 그의 말들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마치 개구리처럼 어디로 뿔지 모른다. 그가 이번에도 '트럼프 빨대'라는 가상천외의 일을 저질렀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선거본부가 대통령의 이름(Trump)을 로고로 새긴 빨간색 플라스틱 빨대를 만들어 판매한 것이다. 플라스틱 공해는 이미 전 세계적 문제가 되어 그 공해를 감축하는 일환으로 많은 나라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종이 빨대가 불편하다며 플라스틱 빨대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바다로 흘러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오염물질을 흡

착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한다. 이를 해양 생물이 먹고 이것이 우리 식탁에까지 오른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는 것일까? 그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체결한 파리 기후협약에서도 2017년에 탈퇴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남북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빙하가 녹고 있다면 지금쯤이면 다 없어졌을 것이다." "기후가 따뜻해지는 동시에 서늘해지고 있다."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세계적인 기후 위기, 기후 재난을 그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정책을 비판한 민주당 소속의 흑인, 무슬림, 이민자 출신의 초선 여성 의원들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또 흑인 비율이 60%인 도시 볼티모어를 가리켜 "죄와 설치류가 들끓는 역겨운 난장판이다. 누구도 살고 싶어하지 않는 미국 최악의 지역이다"라 비하하는가 하면 흑인 민권운동가 엘 샤프린 목사를 '사기꾼'이라 몰아붙이기도 했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얼마나 위험하고 반인륜적인가를 그는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그러는

것인가? 트럼프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위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계속 증액시키고 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초기에는 우리가 시설과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이 운영 경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의 분담금을 올리라고 요구하더니 2019년 2월 제10차 협약 때는 전체 경비의 50%에 해당하는 1조 389억 원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었다. 그것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는 조건이다. 들리는 말로는 2020년 제11차 협약 때는, 주한 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 경비 이외에도 한미연합훈련 경비,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경비, 남중국해 자유통행 보장을 위한 경비 등을 합하여 약 5조 원의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 한다. 그런데 분담금 중 미국의 미집행 액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9490억 원이나 되어 미국은 매년 300억 원의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런데도 분담금을 또 올리라니, 트럼프를 장사꾼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기가 원래 기업이 출신이니 장사꾼으로 불러도 이상할 것은

없다. 기업가의 유일 최고의 목표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트럼프가 우리에게 일말의 희망을 안겨 준 일이 있었으니 바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다. 트럼프의 강력한 압박 때문인지는 몰라도 김정은이 협상 테이블로 나왔고, 종전 이후 가장 희망적인 남북 관계 분위기가 조성됐다. 우리 국민 모두가 들떠 있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2차 하노이 회담에서 그는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는 돌출 행동을 연출했다. 그러면서도 그 후 김정일의 친서를 받고는 "아름다운 친서다" "매우 따뜻하며 매우 멋진 친서다"라 했고, "미국 정부는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으며 김정일을 '위대한 지도자'라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도대체 중잡을 수 없는 행보다. 남북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가 서글프기 짝이 없지않아 그래도 트럼프에 거는 일말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면 트럼프를 마음속에서 지워 버려야 하는가? 트럼프를 어이할까?

교단에서

까치 배 바닥 같은 소리



김진우  
일신중 교감

"까치 배 바닥 같은 소리 하고 있네"란 말이 있다. 허풍쟁이나 흰소리 잘하는 사람의 말을 두고 비꼬는 의미다. 자신의 잘못이나 결점은 모르고 남의 흉을 거리낌 없이 보는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다. 까치는 배 부위가 흰색이다. 어찌나 날개에도 약간의 흰색이 있지만 대부분은 검은색이다. 까치가 고개를 숙여 깃털 손질을 하면 배에 있는 흰색만 보이니 자기를 허다고 착각한다. 검은 까마귀나 다른 새들을 보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까악 까악 비웃는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 또는 끼리끼리 자기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러우면서, 상대편에게는 엄격하고 혹독하게 요구하는 목소리를 '까치 배 바닥 같은 소리'라고 한다. 학교운영위원장이 장학금을 보내왔

다. 매년 이렇게 사재를 내놓는다. 학부모도 아니고 자녀가 우리 학교에 다니는 적도 없다. 학교 근처에 산다는 인연으로 학교를 돕고 싶다면 운영위원장의 역할도 맡아주시고 장학금도 기부할 것이다. 장학금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돈보다 마음이 먼저 나서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학교의 장학금 지급 요건 및 규정은 1. 학비 부담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기반 전제) 2. 학교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 3.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다. 1의 조건을 충족하고, 2와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정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최우선이다. 작은 중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도 이렇게 엄격하다. 이번에도 각 학년에 공지하여 학년별로 두 명씩 1차로 여섯 명을 추천받았고, 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학년 당 한 명씩 3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추천 사유를 보면 여섯 명 모두 눈물겨운 사연이고 생활이였다. 모두 다 주어야 할 형편이었다. 그래도 장학금을 주신 분의 포근한 손길이 어는 학생에게 더 필요하지 고민하면서 선정하였다.

예전 장학금은 학업 성적의 상징이였다. 지금은 국가 장학금, 근로 장학금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 지원하는 추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장학금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수십억 재산이 있으니 가정 형편도 아니고, 두 번의 유급이니 학업 성적도 아니다. 장학금을 받을 명분이 없다. 반복되는 말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없다는 것뿐이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연속 2회, 부산대 의전원에서 연속 6회. 한두 번이야 그렇더라도 이렇게 내리 연속은 보통 학생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만약에 신청도 하지 않은 장학금이 계속 나온 사실을 알고 형편이 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반납했거나, 반납하라고 아버지로서 조언을 했다면 백성들은 더 높은 벼슬자리로 모시자고 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트위터로 흠수저와 개천의 민초들을 어루만져 주었으니 언행일치의 표상이 아니겠는가. 명분 없는 장학금이 구름 위로 날아오르는 용에게 가지 않고 개천의 봉어, 개구리, 가재에게 갔다면 그가 수많은 글에서 꿈꾸던 따뜻한 세상으로 한발 더 다가가지 않았을까.

많은 보름달도 가까이 보면 흠집이 있듯 인간이 살면서 실수나 허점이 있지만 남의 가슴을 후냈던 그 예리한 필설 때문에 실망이 큰 것이다. 본인이 개천에 살면서, 봉어에게 '그래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어, 그냥 흐린 개천이지만 아웅다웅 살자' 하면 수궁이 가지지만, 용이 저 아래 민초들에게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렁거덩하지 말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데 힘을 쏟자!' 하니까 많이들 화가 난 것이다. 백팩을 메고, 텀블러를 들고, 간혹 좌에서 우로 쓸어 넘기는 긴 머리카락의 스마트한 연출도 2009년 가입 이후 10년간 하루 평균 몇 건씩 울려야 가능한 1만 5000여 개의 까치 배 바닥 같은 트위터에 무너진 것이다. 지역과 언어를 넘어서 개인 간, 대중 간의 양방 소통의 시대, 모든 것이 기록되고 실시간 확인 가능한 이 시대에는 영웅의 탄생이 어렵다고 한다. 말조심 하라는 당나라 재상 풍도(馮道)의 '설시'(舌詩)가 있다. "입은 재앙이 드나드는 문이요(口是禍之門),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舌是斬身刀).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閉口深藏舌), 머무르는 곳마다 몸이 편하다(安身處處牢)." 까치는 대부분 검은색이다.

기고

필암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법고창신 계기로



김용하  
조선대 사범대 겸임교수

지난 7월 6일은 우리나라의 문화계에 대단히 큰 역사적인 날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한국의 서원'을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서원'이 성리학의 개념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불교나 기독교 유산에 비해 유교 유산은 세계 유산에 등재된 사례가 적어

세상을 한탄하였다. 허서 김인후는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학문적 소양을 갖춘 성균인 정조대왕이 '도학(道學) 절의(節義) 문장(文章)의 해동 제일인자'라고 극찬하면서 허서 사후 236년이나 지난 뒤에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배향을 시키고, 1659년 필암서원의 등재 대상은 전남 장성의 필암서원을 비롯하여, 9개의 서원을 묶어서 지정할 것인데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원의 분포를 보면 영남 지방이 여섯 개이고, 충청·호남은 세 개 밖에 안 되어 차이가 있다. 특히 우리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전남 장성의 필암서원(筆巖書院)은 허서 김인후(1510~1560)를 숭앙하려고 1590년에 지은 서원이다. 김인후는 1540년 문과에 합격했고, 이후 인종이 왕이 되기 전 세자 시절에 가르쳤다. 그러나 인종이 1545년 즉위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사회가 일어나자 명종의 여섯 차례의 부름을 거절하고 낙향하여, 학문을 탐구하고 후진을 가르치면서 잘못된

이 되지 않은 유일한 서원이며, 서원에 걸린 현판은 당대의 대가들이던 송준길, 송시열, 윤봉구 등이 썼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대도시인 광주에서 불과 30여 분의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근처에 우리 정신 문화의 원류이며, 역사와 철학, 문학이 융합된 수준 높은 문화 유적지인 필암서원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지나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광주가 아시아 문화전당을 비롯해서 문화적 메카로 자부하고, 의향(義鄕)·예향(藝鄕)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문화적 마인드는 어디쯤 자리하고 있을까를 되돌아 보게 한다. 필암서원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계기로 세계에서 인정받은 인류 전체의 유산이 우리 지역에 있음을 긍지와 자부심으로 여기고, 역사와 전통, 유물과 유적, 그곳에서 서린 보편적 가치를 찾아 더욱 발전시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일대 문화 혁명이 촉발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을 읽고, 글을 지을 것을 바랐다. 두 아들을 불러 곁에 두고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서릿발 같은 꾸중도 서슴지 않았다. "지금 나는 멀리 귀양살이와 납죽 풍토병이 심한 변방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외롭고 불쌍하게 지내면서 밤낮으로 너희들에게 희망을 걸고 마음속에 담긴 뜨거운 마음을 쏟아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한번 얼핏 읽어 보고 고리짝 속에 처넣고는 다시 마음을 두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박

社說

민간공원 개발 특혜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중앙공원 1·2지구 특례사업과 관련, 광주시가 '용적률'이라는 규제 장치를 이중 잣대로 적용해 건설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을 일컫는 용적률은 개발 과정에서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어 장치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29일 도시계획위원회 열고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자인 (주)한양 측이 공원 내 비공원 부지에 지을 아파트 규모를 기존 2104가구에서 2370가구로 266가구 늘려 줬다. 이 과정에서 용적률이 기존 164.78%에서 199.80%로 완화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한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자인 (주)호남건설 측의 아파트 변경안도 받아들였다. 애초 178.3%였던 용적률이 205.7%로 완화되면서 사업자 측은 94가구를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앞서 광주시의 우선협상자 선

정 평가에서는 건폐율과 함께 용적률에 계량 평가 항목 네 개 가운데 두 번째인 12점(100점 만점 기준)의 높은 배점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높은 기준을 적용했다가 업체 선정 이후에 완화시켜 준 것이다. 용적률 완화로 해당 건설사들은 추가 매출과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 공공요금도 이러한 혜택이 광주시의 특정 감사로 우선협상자가 뒤바뀐 중앙공원 1·2지구에 집중돼 의혹을 키우고 있다. 광주지검은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변경과 관련해 광주지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용적률 완화의 배경으로 사업 제한 당시인 1년 전보다 업체들의 금융비용이 늘어난 점을 들고 있지만 일부 지구 업체에만 이를 적용한 것은 특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서 이러한 의혹도 명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조국 장관 임명은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재기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인사 배정을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해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지만 대통령으로서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청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에 대해서는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여야는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수순'이라 했으며 마지막까지 '데스노트' 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정의당도 여당과 마찬가지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들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조롱'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함께 특검과 국정조사 및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반인의 반응도 여전히 엇갈린다. 사법 개혁을 바라는 찬성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현 정부의 가치가 흔들리면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런 가운데 검찰은 임명과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조용히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지만 만일 차후에도 중대한 흠결이 나온다면 조 장관은 자신의 거취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無等鼓

"너희들은 집에 책이 없느냐? 몸에 재주가 없느냐? 눈이나 귀에 총명이 없느냐? 어찌서 스스로 포기하려 하느냐? 영원히 폐족(廢族)으로 지낼 작정이나?" "폐족이면서 글도 못하고 예절도 갖추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강진으로 유배를 한 선비가 10대 두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는 '무거운 죄를 지어 벼슬이나 출셋길이 막힌 집안'을 뜻하는 '폐족'이라는 말을 유독 편지마다 자주 썼다. 그는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두 아들에게 열심히 독서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을 읽고, 글을 지을 것을 바랐다. 두 아들을 불러 곁에 두고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서릿발 같은 꾸중도 서슴지 않았다. "지금 나는 멀리 귀양살이와 납죽 풍토병이 심한 변방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외롭고 불쌍하게 지내면서 밤낮으로 너희들에게 희망을 걸고 마음속에 담긴 뜨거운 마음을 쏟아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한번 얼핏 읽어 보고 고리짝 속에 처넣고는 다시 마음을 두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박

석우 편역,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중) 이처럼 멀리서 편지로 원격 지도를 한 아버지는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1762-1836)이다. 두 아들(학연·학유)은 비록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바람대로 시문에 능한 선비로 자랐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자녀를 향한 내리사랑은 각별하다. 속담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 '함함하다'는 털이 보드랍고 반지르르하다는 의미다. 동물이나 인간이나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를 수 없다. 요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문제에 이어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일고, 글을 지을 것을 바랐다. 두 아들을 불러 곁에 두고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서릿발 같은 꾸중도 서슴지 않았다. "지금 나는 멀리 귀양살이와 납죽 풍토병이 심한 변방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외롭고 불쌍하게 지내면서 밤낮으로 너희들에게 희망을 걸고 마음속에 담긴 뜨거운 마음을 쏟아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한번 얼핏 읽어 보고 고리짝 속에 처넣고는 다시 마음을 두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박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기사 자곡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건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